

大都市 管理(1)

— 都市의 管理問題 —

盧椿熙

서울市立大學校 都市行政學科 教授

Report/The Management of Urban
by Ro, Choon-Hee

특히 이 글은 지난 1986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서울市立大學校 都市行政學科

特性化計劃에 의하여 美國 뉴욕市의

都市行政研究 및 운영관리 문제를

현지에서 共同 研究 한 部分임을

밝혀 둔다.

1. 都市行政管理

(1) 都市行政

都市行政이란 都市生活의 質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란 도시의 주요한
生活施設計劃을 수립하고 조성할
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건설을 통하여
도시민의 좋은 生活圈을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2) 都市管理

이와같은 都市生活施設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管理”란 말의 語源은 이태리語로
“manegios”로서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말이다.

관리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관리자는 부모처럼 책임성이
있어야 하고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都市를 生命을 가진 有機體로
본다면 이와같은 人間의 生命을
다루는 의사의 경우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기능이 三分이면 이를 관리,
간호하는 간호원의 기능은 七分이
되어서 의사 못지않게 관리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2. 都市問題

(1) 農村과 都市

都市는 풍부한 삶의 장소이다. 따라서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농촌의 인구는
감소되고 都市人口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여 가게 된다. 그러니 모든
國家問題는 그 中心이 농촌문제에서
도시문제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마침내는 偉大한 都市는 偉大한
國家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전원적이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운집하게 되는가? 이는 都市가

本 論文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
도시인의 모든 생활시설을 경제·사회
그리고 물리적으로 능률과 안전과
쾌적성이 높은 도시로 만들 수
있으며 또한 都市機能의 과학적인
관리로부터 經濟的인 시설과
審美的인 종합운영관리문제를
다루는데 목적이 있다.

머리말

太初에 우주가 混沌하고 空虛하며
암흑이었던 것을 神은 빛을 만들어
아름다움을 지어내듯이 人間은
都市를 편리한 生活空間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와같은 도시는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文明의 요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人類文化의
產室이 되게 되었다. 마침내는 偉大한
都市는 偉大한 國家를 만든다고
말한다. 이는 社會의 모든 中心이
農村에서 都市로 변한다는 것이다.
問題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운집하게 되나를
생각하면 도시가 농촌보다 살기가
편리하고 文明의 利器가 많고 더 나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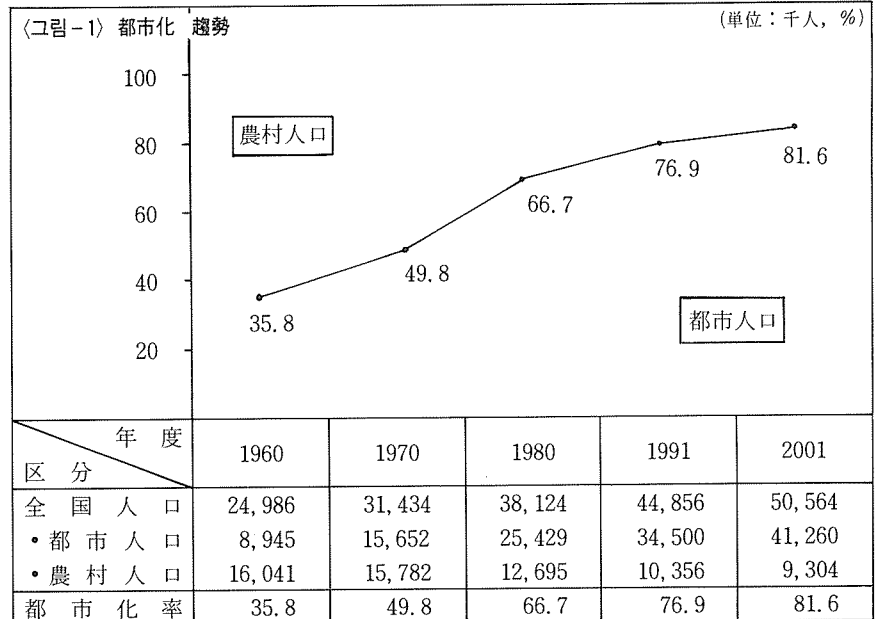
都市行政은 이와같은 도시에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고 도시질서를 만들어
줌으로써 도시의 合理的인
生活秩序를 定立시키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本 論文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
도시의 모든 생활시설을 경제·사회
그리고 물리적으로 능률과 안전과
쾌적성이 높은 도시로 만들 수 있으며
또한 都市機能의 과학적인
관리로부터 經濟的인 시설과
審美的인 종합운영관리문제를
다루는데 목적이 있다.

농촌보다 살기에 편리하고 더 많은 文明의 利器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더욱 많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主要動機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와같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收入의 원천이 되는 소득이 농촌보다 풍부하다는 것이다. 都市行政은 이와같은 都市에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고 도시질서를 부여하여줌으로써 都市의 合理的인 생활질서를 定立하는 道具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흐트러지고 무질서했던 농촌의 작은 마을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도시의 질서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시생활이 편리하게 되어 점차 인구가 증가하게 되며 그곳이 文明의 集産地가 되며 하나의 都市文化가 꽃피게 된다.

(2) 都市文化

都市文化의 특징은 농촌생활이 자연의 질서를 토대로 하여 발전해 나가는데 반하여 都市文化는 人工的인 시설과 文明의 産物을 근거로 하여 발전하여 가게 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社會發展·段階를 보면 前工業 (Pre-industry) 에서 工業 (Industry) 로 그리고 제 3 물결이란 脫工業 (Post-industry)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前工業社會에서 主體는 農夫이고 그 資源이 土地였던 것이 工業社會에서의 主體는 企業人이고 資源은 機械이고 脫工業社會에서는 그 주체가 전문지식인·大學·연구소 등 전문고급인력이 되며 資源으로서는 지식과 과학을 다루는 전문적인 연구소기관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을 조망해 보면 농업에서 공업으로 다시 공업에서 서서비스로 그리고 情報産業으로 발전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이와같은 산업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도시는 생산의 場이요 생활의 터전으로서 앞으로의 도시는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여러가지 도시수요의 충족과 매력있는 정보의



註: 都市人口은 市 및 人口 2 萬以上の 邑을 대상으로 함.
資料: 建設部 都市局

집중관리, 전파, 발신지로서의 구실을 다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하게 되며 도시에서 발신하는 정보가 산업정보 및 생활정보가 되어 생산과 생활이 융합과 조화를 이루어 닥쳐올 脫工業社會의 都市象이 될 것이다.

3. 都市化

(1) 都市化의 概念

都市化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과정으로서 도시수의 증가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규모의 증가를 말하게 된다. 데이비스(K.Davis) 같은 사람은 都市化를 “都市居住者數의 全人口에 對한 비율의 증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인구가 도시인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면 도시화의 정도에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설명한다.”

都市化 (Urbanization)란 말은 일반적으로 협의의 도시화와 광의에 있어서 도시화로 구분한다. 협의의 도시화는 근대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농촌적인 지역이 도시적인 지역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광의의 도시화로써 취락이나 마을지역이 都市的인 요소가 점차 증대하여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주개념은 모두 농촌이 도시적 지역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광의의 해석은 도시자체의 변화과정까지도 포함하는 도시지역의 확대를 의미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農地·山地 등이 주택, 상점, 공장 등으로 변모하여 도시적인 현상으로 변화하는 것과 어떤 地域社會가 근대적 생산양식으로 발전하게 되어 공업화를 주체적인 원동력으로 해서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기능의 담당인구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대응, 흡수되어 도시인구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게 된다.

(2) 우리나라의 都市化

우리나라의 都市化 추세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에 35.8%에 불과하던

〈표 1〉 都市數의 增加現況

年度	合計	特別市 및 直轄市	市	邑
1951	95	1	19	75
1955	98	1	19	78
1960	112	1	26	85
1964	123	2	30	91
1970	123	2	30	91
1973	157	2	33	122
1979	209	2	34	173
1980	244	2	38	204
1981	238	4	46	188
1983	237	4	46	187
1985	237	4	46	187

資料: 內務部 「韓國都市年鑑」

都市化率이 1970년에 49.8%로 그리고 1980년에는 66.7%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와같은 都市化率은 계속되어 1991년에는 76.9%, 2001년에는 81.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1990년에는 全國人口의 4分の 3 以上이 都市地域에서 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都市數의 증가를 보면 <表-1>에서와 같이 1960년의 市級 都市數는 27개였던 것이 1960년, 1970년 10년간

울산·천안·안동·의정부·속초 등 5개의 새로운 도시가 신설되어 19%의 도시수의 증가를 나타내게 되어 27개 市가 32개 都市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에서 1980년까지는 성남, 부천, 안양, 동해, 제천, 구미, 영주, 창원 등 8개의 新都市가 생기게 되어 1980년에는 1970년에 비하여 25%의 都市數의 증가를 나타내어 40개 市가 되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1981년부터 광명, 동두천, 송탄, 태백, 정주, 남원, 금성, 영천, 김해, 서귀포 등 10개 도시가 신설되어 1985년말 현재 市級 都市數는 50개이고 邑級 都市數는 187개로 되어 있다.

(3) 都市秩序와 生活樣式

모든 사물에 그들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질서가 있기 마련이다. 우주의 질서, 계절의 질서, 나라의 기본질서 등과 같이 도시에서 그들의 질서가 있다.

都市에서는 많은 인구의 集積에서 오는 새로운 都市生活秩序를 요구하게 된다. 도시에는 많은 편리한 생활시설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어떤 질서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의 새로운 都市生活樣式, 다시 말해서 도시의 합리적인 생활질서가 정립되게 되는 것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도시생활에 대한 意識構造의 변화와 적응이 뒤따라야 된다. 그들의 생활형태가 농촌생활양식에서 도시생활양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는 자연질서에 바탕을 둔 농촌과 달라서 과밀한 人口, 협소한 空間에

많은 人工施設物이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서의 생활질서와 생활양식이 형성되어지게 된다.

이와같은 생활질서는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한 아버지代에서는 양복을 처음 입어 보게 되고 아들代에서는 새로운 구두를 신고 손자代에서는 구색을 갖춘 넥타이도 땀 줄 알게 되어 비로소 성숙한 都市文化人의 모습으로 탈을 바꾸게 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完熟한 都市文化人이 되는 과정과 같이 農村生活樣式에서 都市生活樣式으로 변모되는데는 거의 三代에 걸친 세월을 보내면서 일정한 순서와 어느 정도의 秩序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적인 질서이든 인위적인 질서이든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모든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社會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이같은 기본질서를 무시하거나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일어나는 혼란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도시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서 첫째, 사람이 살아가는 곳으로서 도시는 그곳에 사는 시민들에게 즐겁고 매력적인 곳이어야 한다. 둘째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企業과 일반영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機能이 있어야 한다.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都市經濟生活에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끝으로 人間的인 都市가 되어야 한다. 都市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都市의 구성원으로서 安全한 生活를 할 수 있으며 都市環境에 언제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4. 都市管理技術

참다운 관리자는 경직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빠른 환경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훌륭한 관리란 끊임없는 도시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대응, 조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예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내일을 위해 더욱 더 잘 준비하고 오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1) 管理의 基本

농촌행정은 農村住民을 위한 사람과 물건을 관리하게 될 것이며, 도시행정은 도시주민을 위한 물건과 사람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농촌생활은 도시생활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기술도 단순한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도시란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이들을 관리하는 기술 또한 고도로 전문화한 지식이 요구된다. 都市가 복합체란 말은 농촌에 비하여 인간을 위한 인공적인 생활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쿠퍼(Couper)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神은 농촌을 만들었고 사람은 都市를 만들었다.”라고 까지 했다. 이와같이 농촌을 ‘있는’ 것이라면, 도시는 사람이 만든 또 앞으로 바라는 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都市管理는 다양한 인간의 목적을 종합체계화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모든 기술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지식이 없으면 기술이 없게 된다.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知識과 技術應用原理가 있다.

‘왜’라는 目的, ‘누구’라는 주체와 ‘어떻게’라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첫째, ‘왜’ 혹은 ‘무엇’이란

지식은 도시사회 및 환경

Commanity & Environment에

관한 지식이다. 관리되는 것은

도시인 市市民, 都市社會 및

도시경제구조 그리고 지역사회에

의하여 산출되는 물리적 실체, 토지,

도로, 건물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문제는 정밀성, 정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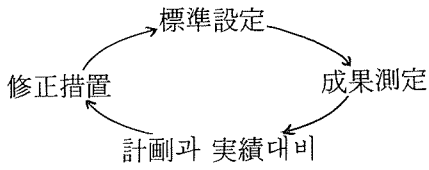
그리고 예측력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사회 및 환경에 대한 지식은

정책과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기술과 충분한 지식을 포함한



(그림-2) 四大管理要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누구'라는 말은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조직 Organization에 관한 지식이 문제된다. 도시관리에 있어서 管理機關은 도시생활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組織을 의미하며, 이는 地方政府와 같은 法的團體들은 물론 도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임의적인 사회 서어비스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이익단체 같은

사적(私的) 단체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다양한 도시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조직에 관한 지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간행동, 조직적 구조 및 과정간의 관계, 정책 형성 등에 관한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조직형태에 관한 보다 특수한 지식이다. 예로서 정치체제, 정부기구, 지역사회조직, 산업체제 등이다. 셋째, '어떻게'라는 것은 절차와 운영에 관한 것이다. 도시행정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시사회 환경, 조직만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은 관계에서 어떻게 도시운용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行政課程의 지식과 행정기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 도시행정에 관한 적용원리로서 지식과 기술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도시사회환경 지식과 組織에 관한 지식을 결합시키면 政策研究가 되며, 이는 도시내의 정치·행정적인 요소에 대한 지식이 된다. 그리고 조직에 관한 지식과 운용에 관한 지식의 결합은 組織計劃이라 할 수 있다.

(2) 目標

都市行政을 都市內의 사람과 물건의 관리라고 보았는데 관리란 어떤 조직체가 可用資源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또한 管理란 어떤 計劃된 目標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계획된 目標에서 많은 편차가 있을 때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管理의 기본적인 요소로는 ① 標準의 설정 ② 成果測定 ③ 計劃과 실적 대비 ④ 修正의 4가지가 있다. (그림-2)

都市가 이와같은 관리를 통하여 都市行政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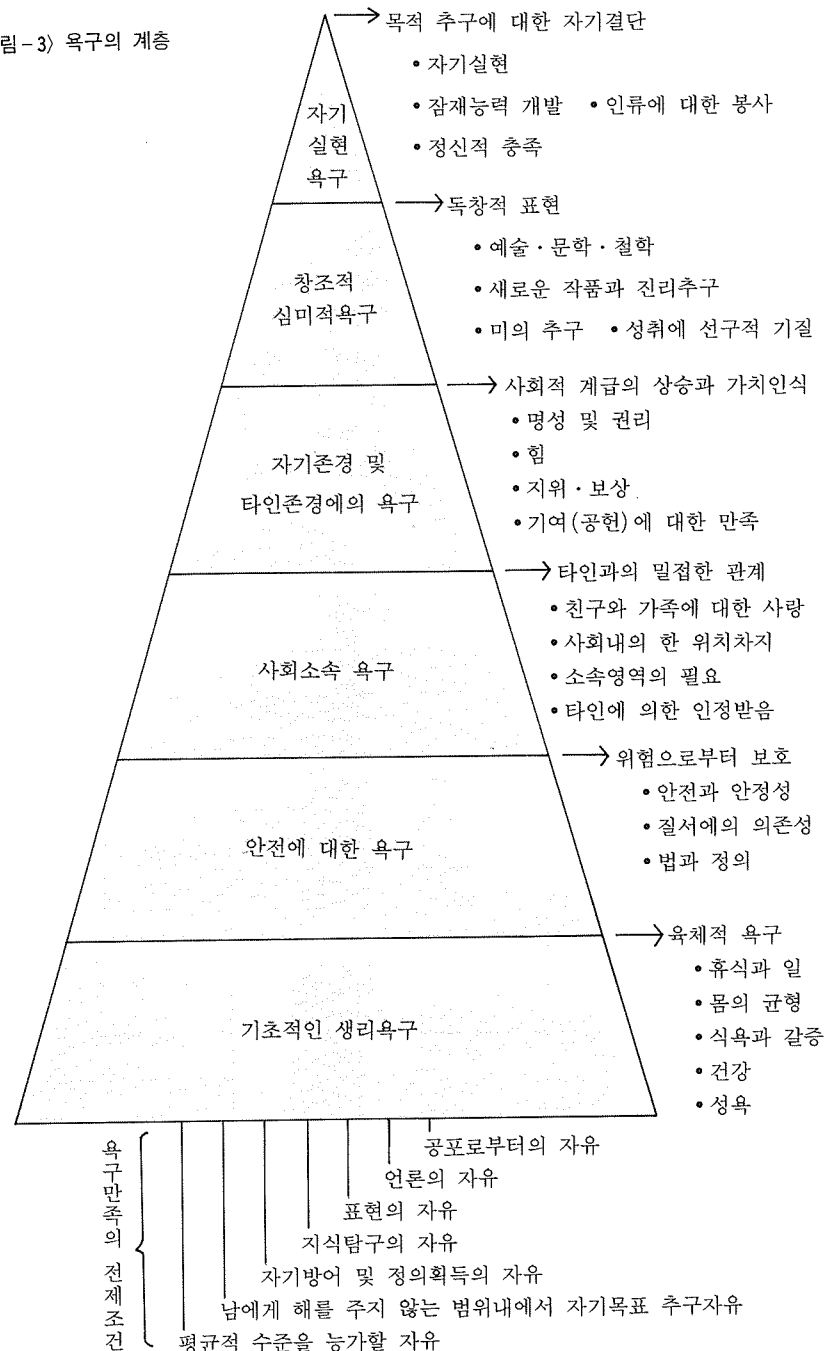
都市政府는 도시민에게 공공서어비스를

供給할 때 可用資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都市서어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효율성과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현재의 서어비스水準을 향상시킬까 하는 組織性,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형편을 증진시킬 수 있겠는가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른 都市管理의 目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 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서 도시민의 경제 및 사회적 장애요소의 제거 및 경제개발.
- ② 보건문제로서 신체, 정신환경 개선.

(그림-3) 욕구의 계층



- ③ 교육문제로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平生教育 實施
- ④ 교통문제로서 空路 및
대중교통수단 개발.
- ⑤ 만족한 물적시설공급으로서 給水,
土地利用, 진재처리, 하수처리 시설.
- ⑥ 문화위락 시설.
- ⑦ 도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서
범죄 방지 및 예방, 교통질서 확립,
민원사항 처리, 화재예방, 재해 대책
및 표준서비스 시설 개발 등을 들 수
있겠다.

(3) 需要

都市行政의 변천을 보면 都市化와 산업화현상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를 대거 도시에 있는 공장과 서서비스사업에 흡수됨으로써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과밀화에 대한 심각한 도시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곧 각국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도시사회문제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지방정부도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게 되었다. 곧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그에 따른 도시행정 체계적 수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19C 서구의 상황과는 달리 공업화나 생산력증대가

이룩되기 이전에 이미 대규모의 인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먼저 도시에 집중함으로써 도시문제가 형성되었고, 또한 그러한 인구는 대도시 생활에 적합한 기술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도시에 대해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건설된 구미 각국의 도시도 20세기에 와서는 그들 나름대로 적지않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도전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도시행정의 성공적 수행여부가 곧 나라의 발전과 직결될 정도로 되었다.

人口가 도시에 집적하여 그 밀도가 높아질수록, 주민의 생활양식이 도시화 될수록,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도시의 영향권이 광역화될수록, 외부불경제가 증대 될수록 기타의 요인들과 더불어 행정수요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한 인간의 욕구단계와 비슷하게 파악될 수 있다.

마슬로(Maslow)에 의하면 인간욕구의 가장 고차원적 단계는 성취와 자아발전을 포함하는 自我實現段階이다. 이 욕구는 만족할 수 없으며 완전히 충족될 수도 없다.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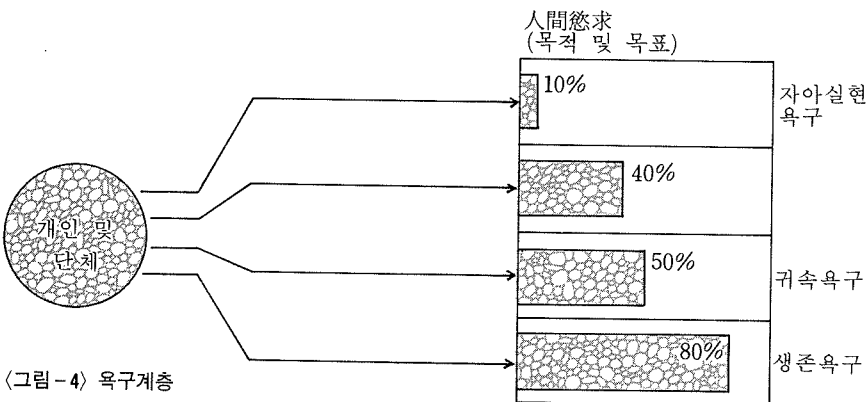
처음에는 생존의 욕구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중점이 소속의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르게 된다. [그림-3]에서와 같이 복잡한 욕구상승현상은 반드시 그 전제조건으로써 여러가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포로부터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지식탐구의 자유 등과 같은 안정된 상태에서만이 여러가지 욕구의 단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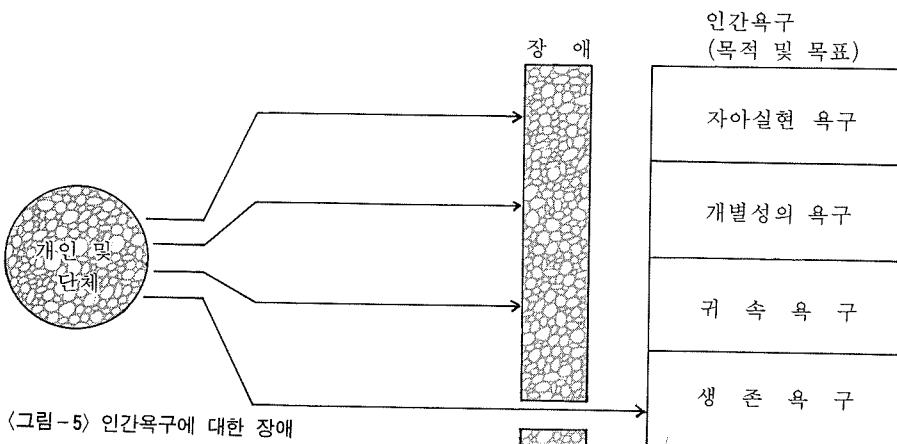
인간은 현재 어떤 욕구에 관계되더라도 항상 자아실현의 몇가지 형태는 작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림-4]와 같이 어느 상황에서 개인은 생리적 안정욕구에 80%, 소속감의 욕구에는 50%, 자기 개별성의 욕구는 40%, 그리고 자아실현에는 10%의 욕구의 강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보다 높은 욕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림-3,4]와 같이 장애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존욕구에 직면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그 장애를 극복 할 수 있다. 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나 조직에도 적용된다.

도시행정수요도 이렇듯 단계별로 그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시규모, 기능분화, 그리고 외부경제에 따른 것으로 살펴해보도록 한다.



(그림-4) 욕구계층



(그림-5) 인간욕구에 대한 장애

5. 都市規模와 行政需要

特定 都市에 있어서의 人間集積의 정도 즉 인구의 규모는 그 도시의 행정당국에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行政需要測定이 기준을 제공한다. 즉 그것은 그 도시의 주민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소한 필요로 하는 생활자료, 시설 및 서서비스의 종류, 분량 및 확보방식과 그들의 생산 및 소비생활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분량 및 처리방식 등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도시행정당국은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도시주민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건을 정비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도시라는 자치체의 정부는 그 인구규모에 대응하는 도시적

지역사회의 하부구조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여타의 요인이 같을 경우에는 도시정부의 총비용 뿐만 아니라 1인당 비용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증대된다. 최초의 사회적, 경제적 대규모 경상투자의 수용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는 비교적 낮은 1인당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 한계를 넘으면 점차적으로 재정투자문제가 장벽에 직면하게 되어, 그 이상의 인구증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규모의 하부구조를 위한 투자가 요구되게 된다.

유럽제국의 경우는 도시의 인구규모가 일정한 크기를 넘어서 그 이상 커지면 그 도시의 1인당 하부구조비용은 점증적으로 상승하여 결국은 新都市 창설비용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대된다는 결론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은 기존도시를 재개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新都市를 건설할 것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의 생활구조는 기능의 분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초기단계의 도시기능은 單純化, 未分化, 同質化

상태인 단순한 공간구조를 가지다가 점차 도시기능은 전문화, 이질화 기능에 변화가 이루어져서 도시공간 기능은 다양화, 복잡하게 된다. 인간의 定住生活이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주거기능에 밀착되어 융합상태에 있던 생활기능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산되어 간다. 도시산업은 집단과 지역의 기능적 특질을 발생시킨다. 특히 생산집단과 소비집단의 분리, 여기에 따르는 직장과 주거의 분리는 도시의 사회적 유동성을 격증시키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같은 도시환경 속에서 주민이 그들의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려 할 때 그들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住居와 職場의 공간적 분리는 그들로 하여금 거대한 人波를 형성하여 양지역간을 조석으로 왕래하게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통근난이라는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문제는 시민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도시의 공공사무로 낙착되기 마련이다.

이렇듯이 기능분화의 필연적 결과로서의 다종다양한 異質의 社會集團의 분출현상은 그들 집단 상호간의 이해대립을 초래하고, 이러한 집단간의 이해대립의 격화는 행정당국의 조정적 개입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행정수요를 증대변질시키게 된다.

□ 주

- 1) K. Davis, World Urbanization, 1950~1970, in., L. S. Bourue and J. W. Simmons, eds. Suprem of Cities, Oxford Univ. Press, 1978, pp. 92 - 100.

□ 참고문헌

1. 盧椿熙, 都市行政學, 一潮閣, 1982
2. ———, 都市學總論, 一潮閣, 1984.
3. Banovetz, J.M., Managing the Modern City(ICMA, 1971)
4. Bent, A.E.&R.A.Rossum(eds), Urban Administration : Management, Politics and Change(Keunikat Press Corp, 1976)
5. Berry B.J.L. The Human Consequence of Urbanization (Mcmillan, 1973)
6. Robin, Jack (ed.), Managing Administraton(N.Y.: Marcel Deker Inc., 1984)

“建築士”誌를 求합니다.

본협회에서는 정보자료실을 설치하여 회원여러분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치되어 있어야 할 우리회誌“建築士”가 그동안의 관리소홀로 다음과 같이 缺号가 생겨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다음의 缺号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께서 喜捨하여 주시면 年단위로 畧本을 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다리겠습니다.

년 도	결 호
'67	5, 6, 10, 11, 12월호
'68	1~12월호
'69	2, 4, 6, 9, 10, 12월호
'70	2, 4, 6, 7, 8, 9, 11월호
'71	1, 5월호
'72	2, 3, 4, 5, 8, 9월호
'73	3, 5, 6, 7, 9, 12월호
'74	1, 4, 6, 7월호
'75	1, 6, 9, 12월호
'76	1월호

연락처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전화 : 581-5711~4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 동방포루마 269-1 7 1 8
276-0123-4